군승의 날 56돌…“군불교 발전에 힘 모으자”

11월 26일 국방컨벤션서 기념식
유공 군승 · 공로상 수여식 진행
실원 법사 총무원장상 수상해
금산사 도영 대종사 1억원 전달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6주년을 맞아 군포교에 앞장섰던 유공군승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제56주년 군승의 날 기념행사’을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1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 대연회장에서 ‘제56주년 군승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1974년부터 군불교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군법당에 다닌 지 5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군승 여러분이 어려운 포교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군포교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부르는 만큼, 많은 분이 군불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군승들도 지치지 말고 책임 있게 계속 활동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대종사는 군포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격려사에서 “산사에 입문하고 군문(軍門)까지 들어온 군승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승복을 벗고 군인 나팔 소리에 기상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사 자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군승들의 적극적인 전법으로 한국불교 미래인 청년층에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교에 앞장섰던 유공군승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상은 계룡대 실원 진승필 법사가 선정됐다. 실원 법사는 “수많은 인연의 땀과 희생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특히 군승들을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희생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포교원장상은 19 전투비행단의 현광 진병은 법사와 진오 손기준 법사가, 군종특별교구장상에 육군사관학교 현혜 권기태 법사, 육군 천경 박성현 법사, 육군 3사단 금담 주기선 법사, 국방부 군종정책과 정광 김웅 법사가 수상했다.

앞서 군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불자들의 포교활동을 치하하는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군종교구는 ‘젊은 불교 활성화’를 목표로 2004년부터 군종교구에 군포교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은 “1975년부터 진흥원은 젊은 층 포교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으로 군법당을 후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군포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공로패에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11년간 지원한 안심사 주지 인득 스님, 37년간 32사단 장병을 위해 점심공양을 마련해준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 2006년부터 군종교구를 후원한 이정림 불자에 전달됐다. 호국철갑사 주지 덕현 스님은 30년간 ‘민간 성직자’로 군포교에 이바지해 ‘30주년 민간성직자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군종교구는 30년의 군법사 생활을 회향하는 보경 함현준 법사에 전역 기념패를 전했다. 보경 법사는 회향사에서 “군문에 들어와 30년 8개월의 시간을 장병들과 함께 했다. 제게 부처님은 푸른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었고 땀냄새 가득한 연병장이 군법당이었다”며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 인연을 만나 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후배 군승들이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불기협 기자상 ‘2관왕’

임은호 차장, 올해 대상 수상
김내영 기자, 기획 · 해설 부문


임은호 차장


김내영 기자

올해 한국불교기자상에서 현대불교신문이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은 본지 임은호 차장의 신년특집 기획 ‘이젠 브랜딩 시대’가 선정됐으며, 기획·해설 부문에서는 김내영 기자의 봉축특집 ‘등은 서원이다’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 이하 불기협)는 11월 26일 금강신문 대표이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작들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심사위원회는 임은호 차장의 ‘이젠 브랜딩 시대’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김내영 기자의 ‘등은 서원이다’를 기획·해설 부문에,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의 연속보도 ‘위장 승려가 몰려온다’를 취재·보도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임은호 차장의 신년특집 ‘이젠 브랜딩 시대’는 “포교의 전환점에 있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완성도 높은 기사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기획”이라고 수상의 이유를 밝혔다.

김내영 기자의 ‘등은 서원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취재와 연구를 통해 불교의 ‘등’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등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등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화석 기자의 ‘위장 승려가 몰려온다’는 “불교계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짚어냈다”고 호평받았다.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다. 정현선 기자



동국대, 어린이·청소년 불자 2000명 수계

전국 산하 11개 유치원 · 학교 순회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가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산하 11개 종립학교에서 청소년 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2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사를 맡은 돈관 스님은 “불교는 미래 세대의 희망과 함께 한다”며 “이번 수계법회가 한국불교의 젊은 전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동국대는 단과대학별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고 ‘영캠프’를 통해 서울과 경주에서 총 4000여 명의 대학생 수계불자를 배출했다. 정현선 기자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무차법회’ 연다

11월 22일, 2025년 사업계획 논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나설 것”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차별없이 평등한 법석인 ‘무차법회’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화엄실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사노위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사업안을 발표,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사업계획(안)에서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활동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양 위원장은 “사노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활동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 오체투지와 같이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활동가와 사회적 약자 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불교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며 “성소수자, 노동자, 난민 등이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무차법회’를 정례적으로 열어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욱 활동가는 활동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사노위는 202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노동, 인권, 빈곤, 이주노동,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재 기자

대행 선사·에크하르트 종교사상 고찰한다

대행선연구원, 12월 14일 제21회 계절발표회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와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3)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된다. 권서용 부산대 한국민족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사 대행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를 통해 대행 선사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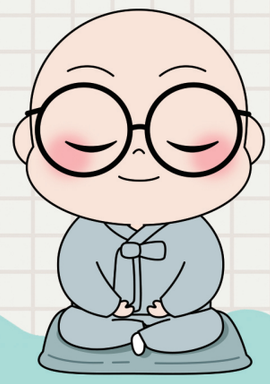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통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즉 기세간(器世間)을 설명하는 불교 교리들을 살펴본다.

이날 계절발표회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토론은 동국대 정선 스님, 한성자 국사편찬위원회 실록영역위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맡는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이 포항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제1회 쿠무다X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공모전



2024. 11. 25 ~ 2024. 12. 10

응모자격
대불련 소속 불교 동아리의 회원

응모주제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

응모형식
주제에 부합하는 모든 형태의 개인 창작물
(에세이, 보고서, 기획안, 제안서, 칼럼, 그림, 포스터, 캐릭터, 사진, 영상, 작곡 등)
※ 텍스트 형식의 창작물이 아닐 경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신청서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일정
접수기간 : 2024. 11. 25 ~ 12.10
결과발표 : 2024. 12. 17
시상식 : 2024. 12. 23 15:00 쿠무다 B1 콘서트홀
(쿠무다 개원 11주년 기념식에 수상식이 있습니다.)

시상부문

구분	시상인원	시상내역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3명	100만원

접수방법
대불련 홈페이지 공지 사항
(http://www.kbuf.org)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모 작품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ilovekbuf108@gmail.com

유의사항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유의사항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10-7323-0239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明京文化財團 MYEONG KYEONG CULTURAL FOUNDATION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사
문화예술 사단법인 KUmuda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963